

광주시, 진월IC 진입로 19일 오후5시 전면 개통



2순환로 도로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2순환로 진월동·효덕IC 0.32km 진입로...주민숙원·교통 개선

용산IC·진월동·효덕IC·노대동 방향 진출로 이어 완전 개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2순환도로 진월IC 구간인 '진아하이빌2차→효덕IC' 진입로가 19일 오후 5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5년 9월 용산IC→진월동 방면 진출로가 임시 개통됐고, 2025년 11월 효덕IC→노대동 방면 진출로가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진월동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입로(0.32km)가 열리면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가 전면 개통됐다.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73억원(시비)을 들여 진월동 일원에서 제2순환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진월IC 완전 개통으로 진월동 인근 주민의 제2순환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테니스장부터 다

목적체육관으로 이어지는 화산로 구간(진아하이빌2차 아파트 앞)의 도로 확장공사도 완료돼 봉선동 방면의 상습 정체 구간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인근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진월IC 진출입로가 완전히 개통됨에 따라 광주시내 접근성 향상과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월IC 진출입로 전면 개통은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남구 지역 교통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진월동과 노대동 일대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통으로

상무지구와 서구, 북구 등 주요 생활권으로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향후 교통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진월IC는 남구 지역의 교통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간 연결성을 더욱 높게 됐다. 화산로 확장공사 완료와 연계돼 차량 통행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상권 역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영 기자

현대차그룹, 남극기지 그린수소 에너지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남극과학기지에 청정수소 에너지 순환 모델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극지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18일(목)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심 김

사장,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 극지연구소 신형철 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극과학기지 그린수소 그리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2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설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디젤 발전에 의존해온 남극 극지 연구시설의 전력 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남극에 수소 생산·저장·발전 을 아우르는 청정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남극과학기지의 에너지 다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린수소 그리드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하고 남극 기지 친환경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그린수소 그리드'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전력 시스템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저장한 뒤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여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다.

현대차그룹은 남극의 디젤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변동

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조량이 풍부한 기간에 잉여 태양광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해 태양광 발전이 제한되는 때에 연료전지로 다시 전력을 생산해 활용하는 남극형 그린수소 그리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수소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극과학기지에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기' ▲수소를 압축해 저장하는 '수소 저장 장치'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기' 등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 동시에 남극 기지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현지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하고 수소·태양광·디젤 발전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력 운영 체계를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기영 기자

광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 직 하나

랜드마크 라 이 프

양동 그랑레브

65A·B/84A·B 총 619세대 | 84A·B 마지막 50세대

시공예정사
BS 한양

062)412-1700